

3월3일~11일 제32회 광주연극제

광주 연극 5色 꽃이 핀다



극단 '진달래피네'의 연습 모습.

까치놀·청춘 등 5개 극단 5편 작품
철종·삼국사기 다룬 시대극 포함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작 선정도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광주시 대표로 참여할 극단을 뽑는 경연에 전쟁의 비극, 가족애 등을 주제로 한 연극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오후 7시30분)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32회 광주연극제를 연다.

제32회 광주연극제는 광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하며 지니엑티스와 광주액터 연극스쿨이 후원한다.

이번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오는 6월15일부터 7월3일까지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대표팀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광주연극제에는 ▲극단 진달래 피네 ▲극단 까치놀 ▲극단 청춘 ▲극단 시민 ▲극단 DIC 등 5개 극단이 참가하며 조선시대, 고려시대 등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 등 총 5편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진달래 피네는 내달 3일 '옥새(玉璽)인가, 옥쇄(玉銜)인가' (이동인 작·최영환 연출)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원범(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며 겪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다. 안동김씨의 세력 앞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은 철종은 점점 미쳐간다.

극단 까치놀은 내달 5일 '표(表)_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글'(양수근 작·이영민 연출)을 무대에 올

■ 광주연극제 공연 일정

날짜	극단	연극명
3월3일 (토)	진달래피네	옥새(玉璽)인가, 옥쇄(玉銜)인가
5일(월)	까치놀	표(表)_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글
7일(수)	청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9일(금)	시민	조용한 세상
11일(일)	DIC	피는 꽃 흐르는 물이로세



극단 '까치놀' 공연 모습

린다. 연극은 1145년 고려 인종 시대를 배경으로 삼국사기가 편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창작극이다. 삼국사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작가와 연출가가 상상력을 동원해 구성했다. 극의 제목인 표(表)는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종이 백성에게 표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황제가 신하에게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극단 청춘은 내달 7일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김광택 작·오설균 연출)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간암 말기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며 곳을 헤맸다고 했다'는 작가 김광택의 자전적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간암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어머니, 무명 연극인 둘째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극단 시민은 내달 9일 '조용한 세상'(정재춘 작·김민호 연출)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조용한 세상'은 한 카페를 배경으로 한다. 카페를 찾은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그 안의 인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사건을 다뤘다.

마지막 작품은 '피는 꽃 흐르는 물이로세'(한승원 작·김종연 연출). 극단 DIC가 내달 11일 선보인다.

연극은 6·25전쟁 직후 인민군이 장악해 '모스크바'라고 불린 장흥군 유치면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오현'의 아버지는 빨치산이 돼 유격투쟁을 벌이다 죽는다. 뒤이어 할머니와 어머니, 형들마저 죽고 만다. 그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외할아버지는 '오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렇게 목숨을 유지한 오현은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시대에 순응하고 유순한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스스로 존재이유를 증명한다.

관람료 전석 2만원(중·고생 1만원), 문의 062-523-729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국립남도국악원이 진행한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모습.

우리 소리, 광주·전남 곳곳 찾아갑니다

남도국악원 28일 화순 공연

이웃들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문화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국립남도국악원의 '찾아가는 국악원'이 첫 무대를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화순 나드리 노인복지관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을 연다.

이 날 공연은 실내악, 살풀이, 사물놀이 등 어른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됐다.

'찾아가는 국악원'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

며 문화예술 관람기회가 적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국악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 초 참가시설 공모에 21개 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화순 나드리노인복지관, 고흥군장애인복지관, 나주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 행복재활원, 광주 로렌시아의집, 광주 씨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순천 동부종합복지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총 5개 지역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61-540-403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수상자 특집 '시산맥' 봄호 발간



"1941년 윤동주는 대표작에 해당하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두루 써냈다... 이 가운데 1941년 5월 31일 창작일로 기록하고 있는 작품은 '십자가'를 포함해서 '눈감고 간다', '또 태초의 아춤' 세 편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윤동주가 1941년 처음으로 시집 제작을 마음먹고 정리한 19편의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 창작 연도를 특정할 수 없지만 '또 태초의 아춤'과 교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태초의 아춤'까지 포함하자면, 1941년 5월 31일 하루는 윤동주의 시력(詩廳)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시마(詩魔)'가 들린 날이라고 과장해서 써도 될 정도다." (신동욱, '십자가' 중에서)

윤동주의 '십자가', '새벽이 올 때까지', '또 태초(太初)의 아춤'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친필 원고 형태로 남아 있다.

계간 '시산맥'이 기획연재로 다루는 '윤동주 시인 자전전필 시고'는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기초적인 자료로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이번 호(봄호·33·사진)에서는 신동욱 시인이 '십자가', 문은강 작가가 '새벽이 올 때까지', 정보영

연구자가 '또 태초(太初)의 아춤'을 다뤘다.

문은강 작가는 "반듯한 언어와 치열한 자기반성 속에서 내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 그는 타인을 향해 손을 뻗는다"고 평했으며 정보영 연구자는 "개인화되고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 끝없이 가중되는 우리의 불안 속에서 시인 윤동주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호에는 2018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수상자 특집으로 김정현 시인의 '물의 악곡', 신작 시 '나의 아름다운 이발병(理髮兵)'이 수록됐다. 시인의 당선소감과 진해진, 나희덕 시인의 심사평도 실렸다.

또한 '제8회 시산맥 작품상' 수상작인 장흥 출신 이재연 시인의 '하공에 검은 선을 그으며'와 신작시 5편과 수상소감도 수록돼 있다. '2018년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 수상작인 이소현 시인의 '이방인' 외 4편과 '2017년 시여 눈을 감아라' 당선자 특집도 수록돼 있어 다양한 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에서는 이성렬 시인을 조명했다. '루비콘강에 내리는 유성우'의 4편과 김나영 평론가의 '시와 현실, 시의 현실'이라는 작품론이 실려 있어 시인의 문학적 지향을 엿볼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